

## KLPGA 임원 입후보 출마 포부서

2003년 KLPGA에 입회한 여지에 프로입니다. 20여 년 전에 정회원 자격을 취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의 눈부신 발전을 지켜보며 협회의 일원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동시에 세계무대에서 국위선양하고 있는 선후배 프로님들과 협회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모든 임직원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요즘과 같이 유례없는 골프 호황기의 중심에 KLPGA가 있다는 것이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

2009년 투어 생활 은퇴 후 다양한 자리에서 골프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스스로 더 발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첫 번째 도전은 스포츠심리학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었고 현재 박사 수료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골프를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하게 되었으며,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을 통해 골프의 긍정적인 효과를 전달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First Tee' 에서 헤드 코치로 활동하며 많은 학생들과 코치들에게 골프를 통한 전인적 교육과정에 대해 전달했고 현재는 주식회사 이도에서 진행 중인 골프 꿈나무 육성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맡아 운영 중입니다.

프로골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협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후배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번 협회 감사직 출마 또한 저에게 의미가 큼니다. 협회가 성장하는 속도에 발맞춰 더욱 공정하고 안전한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다하여 봉사하겠습니다.

2022년 2 월 23 일

성 명 : 여 지 예 

사단법인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귀중